

리우올림픽 D-2... 감동의 대회로

첫 출전 선수들 활약 기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결전의 날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가득하다.

지난 4년간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 선수들은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올림픽 무대를 경험해본 선수도, 처음 출전하는 선수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메달을 이미 목에 걸어 본 선수도, 마지막 올림픽이 될 선수도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을 꿈꾸고 있다.

메달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을 환희와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첫 출전이지만 일 낸다

레슬링 그레코로만 66kg급 류한수(28·삼성생명)는 2005년부터 태릉선수촌에 입촌했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번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좌절을 맛봤다. 런던올림픽 때는 동갑내기 친구인 김현우가 66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류한수는 포기보다는 자신이 흘린 땀의 양이 적다고 생각했다. 더욱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뤘다. 이제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다.

처음 밟아보는 올림픽 무대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는 선수도 있다. 남자 유도 73kg급에 출전하는 안창림(23·수원시청)이다. 재일교포 3세인 안창림은 일본의 귀화 제의를 거절하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안창림은 "최고 라이벌은 일본의 오노 쇼헤이다. 아직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다. 무엇보다 일본 선수에게는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다.

◇명예 회복 노린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앞둔 2일 올림픽 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투데이 행사에서 영국 럭비선수들이 올림픽 오륜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박태환(27) 만큼이나 우여곡절 겪은 선수도 드물다. 4번째 올림픽이지만 가장 힘겹게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사용이 적발돼 지난 3월까지 선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선발 규정에 발목 잡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기도 했으나 극적으로 리우행 티켓을 잡았다.

남자 태권도 68kg급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은 4년 전 런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대훈은 지난 런던 때 금메달을 따내

지 못했던 남자 태권도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에는 한 체급을 올려 체중 감량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근지구력을 키우 체력적으로도 훨씬 단단해졌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

대한민국 선수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핸드볼 오영란(44·인천시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8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많은 고민과 굳은 결심 끝에 서게 된 마지막 올림픽 무대인만큼 금메달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세혁은 올림픽을 앞두고 후배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개인전 출전권을 양보했다. 올해 크로아티아 오픈 단

식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탁구의 미래를 위해 큰형다운 결정을 했다.

여자 펜싱 플뢰레에 출전하는 '엄마 검객' 남현희(35·성남시청)도 조심스럽게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펜싱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현희는 3회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남은 선수 생활 동안 더 이상의 올림픽 무대는 없을 것이라 점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대한민국 출전 사상 가장 먼 곳에서 열린다. 12시간의 시차, 한국과 다른 기후, 불안한 치안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평계가 될 수 없다.

/김민근기자

2016 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말왕전
군산대회

일시 : 2016. 8. 5(금)~8. 12(금) [8일간]
장소 : 군산 월명체육관

5일부터 군산 월명체육관 중·고농구 왕중왕전

2016 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군산월명체육관 및 군산중·고 실내체육관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한국 중·고농구연맹 주최·주관으로 치러지며 공부하는 농구선수 육성과 농구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취지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블린! 플레이! 스타디움 슬로건'으로 내걸고 학생선수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평일 방과 후에 경기를 하도록 해 엘리트 체육의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 60개 팀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며, 중·고등부, 남·녀로 나뉘어 예선 조별 풀리그를 거친 후 본선 토너먼트, 결승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군산=문정곤기자

지자체·공공기관,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에 출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은 ▲프로구단은 지자체 소유의 연구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이 프로스포츠구단에 공영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영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 법률에 명시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 기술개발의 지원·출연 대상과 사업을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김민근기자

IOC 위원장 “반도핑기구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러시아 ‘핵흡션’ 무고한 선수들 부수적 피해 받게 될 것”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시스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3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WADA의 시스템에 결함이 드러났다”며 “IOC는 더욱 탄탄하고 효율적인 반도핑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전면 출전 금지인 ‘핵흡션’은(러시아) 무고한 선수들의 부수적인 피해를 낳게 될 것”이

라며 “핵흡션은 죽음과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올림픽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적 정의는 사람이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외부에다 던지시 알리며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도핑을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약물 스캔들에 초강경 조치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WADA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앞서 WADA는 지난달 캐나다 법률가인 리처드 매클라렌이 주도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문제를 폭로하면서 ROC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해야 된다고 요청했지만 IOC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출전 금지 대신 선수들의 소속 국제연맹이 출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당시 WADA는 “IOC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금지약물 사용으로 스포츠 시스템에 광친 확실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도 이를 강력히 응징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WADA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는 없었다. 러시아 내부로부터 이미 수년 전 조직적 도핑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처리를 늦추다가 올림픽이 임박해서야 진상을 알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바흐 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소치 연구소에 대한 인가와 감독은 IOC가 아닌 WADA의 책임”이라며 “WADA는 왜 내부 고발자의 증거에 대해 더 일찍 조치하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바흐 위원장의 이같은 일침에 대부분의 IOC 위원들이 동조했다.

헤라르도 웨르타인 아르헨티나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은 “IOC가 아닌 WADA의 평판이 복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WADA의 행태를 보면 본래의 일이 아닌 매스컴의 관심과 홍보활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민근기자

강정호 역전 결승 2루타...팀 승리 일등공신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역전 결승 2루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강정호는 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터너 필드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5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36(203타수 48안타)를 유지했다.

강정호는 2-2로 맞선 6회 1사 1.2루의 찬스에서 상대 구원 마이크 플라타네치의 2구째 시속 95마일(약 153km)짜리 직구를 노려쳐 좌전 적시 2루타를 작렬, 2루주자 맷 조이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시즌 13번째 2루타로 시즌 37타점째를 올렸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